

‘전북 e스포츠 챌린지’ 내달 개최

17일 온라인 예선 · 24일 오프라인 결선
전북도콘텐츠진흥원, 8일까지 신청접수
종목은 스타크래프트 · 피파온라인4 등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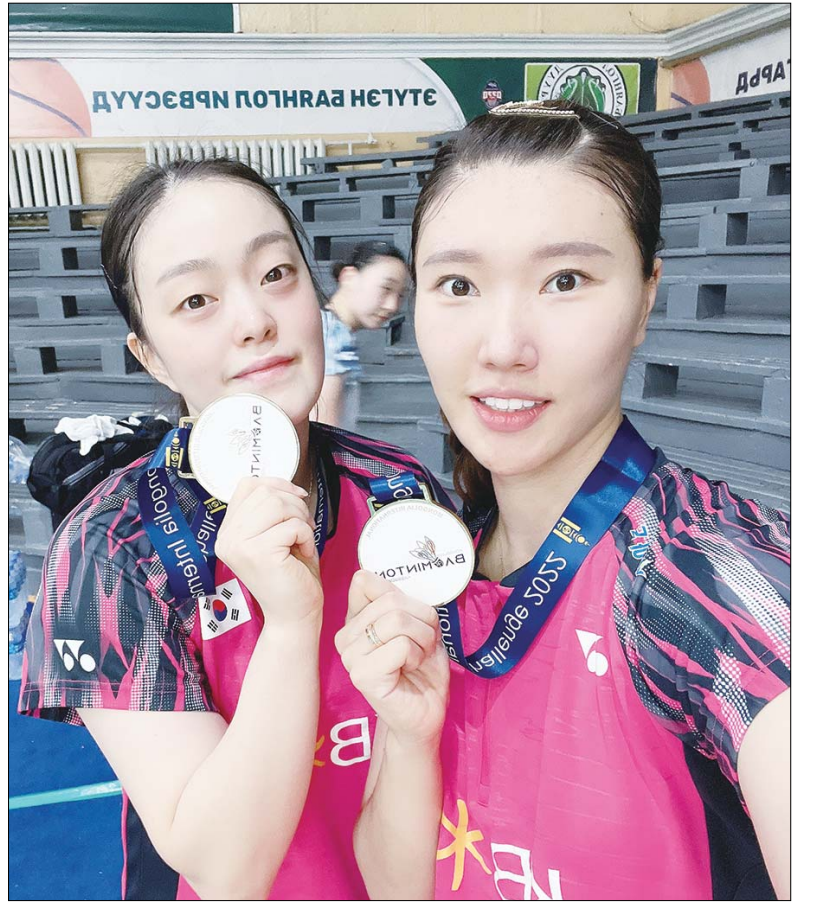


포함되어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9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 확인 예정이다. 대회 관련 내용은 전북 e스포츠 챌린지 대회 사무국(063-253-7117)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이하 게임센터)는 '2022 전북 e스포츠 챌린지 대회' (이하 전북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전북 e스포츠대회는 20년도부터 스타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카트라이더 등 다양한 종목의 게임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지금까지 약 679명이 참가했다. 이번 전북 e스포츠 챌린지 대회 참가자는 9월 17일에 온라인 예선을 거쳐 9월 24일 진흥원 1층에서 오프라인으로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게임종목은 △스타크래프트(개인전) △리그오브레전드(5인 단체전), △피파온라인4(개인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개인전)

로 구성해 총 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결선이 열리는 9월 24일에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임단 프래딧 브라운의 박정석 단장의 특강이 게임센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이어서 박정석 단장과 박태민 해설 겸 캐스터의 e스포츠 중계 및 다양한 이벤트로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 e스포츠대회는 전북 소재지의 대학생 및 일반인(직장인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홈페이지와 e스포츠 플랫폼 게임의 민중에서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 팀 내 전북 소재지의 팀원이 1명 이상만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윤민아, 성승연(사진 왼쪽부터)

전은 배드민턴팀, 국제대회 맹활약

몽골 개최 인터내셔널 챌린지
윤민아·성승연, 女복식서 우승
박민지·송현주, 동메달 차지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개최된 2022 몽골 인터내셔널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에서 전북은행 배드민턴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여자복식에 나선 전북은행 윤민아·성승연 조는 결승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혜린·성지영

조를 2대 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윤민아는 최현범(광주은행)과 팀을 이뤄 출전한 혼합복식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박민지·송현주도 여자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전북은행 배드민턴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전북은행 김효성 감독은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기쁘다"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홍삼배 전국 남녀배구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난 20일~21일까지 이틀간 문예체육관에서 보조경기장 5개소에서 개최한 제11회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시기로 대회 개최가 지연되다가 3년만에 실시해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이틀간 자웅을 겨루는 자리로 빛났다. 대회 종목은 남자 클럽 3부, 장애인 및 여자

클럽 3부로 진행됐으며 선수단 및 임원 관계자까지 72팀, 약 1,180여명이 참가하여 오랜만에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숙박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회와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배구대회는 휴가철을 맞아 참가하는 선수단 및 가족들이 경기 후 진안의 천혜의 미사산 등 관광명소들을 둘러보며 진안군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으며 진안군 대외적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종합 2위

종합점수 113점 역대 최고 성적
카트라이더 종목 한기웅 우승
내년 대회 군산에서 개최



카트라이더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기웅.

제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대통령배 K&G) 전국 결선에서 전북도는 종합점수 113점으로 2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본보 8월 22일자 16면)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대통령배 K&G는 정식 종목 세 가지와 시범 종목 두 가지로 운영됐다. 정식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였고, 시범 종목으로는 이터널 리턴(일본 부문)과 카트라이더(말발 부문)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카트라이더 종목의 우승을 차지했다.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한 한기웅은 단 1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16강에 진출했으나, 품을 활 끌어올리며 결승 대전에 이름을 올렸다. 결승전에도 초반부터 꾸준히 최상위권 경합을 펼쳤고, 12라운드 승리로 우승을 확정했다. 한편 2023년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

츠대회는 군산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북대표 선수단을 인솔한 최훈 (재)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ICT융합본부장은 "지역예선을 통해 전북 대표 선수단을 구성하고, 프 로게이머 전문 교육기관의 트레이닝을 제공해 선수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내년에도 전북도 군산사와 함께 K&G 전국결선을 공동주 관하여 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이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